

CHAPTER 4. 정시모집 대비 전략 수립의 정석

3) 결국 정시모집은 수능, 수능 수능!

정시모집의 중요성, 그리고 정시모집 지원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앞서 깊이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의 수능 점수를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능 점수를 받으면 어떠한 전략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수능'이 관건입니다.

최근의 수능은 다소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은 최근 몇 년간 실시됐던 수능 중 가장 어려웠고, 얼마 전 치른 2018학년도 수능 또한 영어 절대평가로 쉽게 출제되리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쉽지 않은 시험이었지요.

일각에선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는지, 쉽게 출제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능은 성적표에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수능은 내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수인 '표준점수'를 비롯해, 백분위, 등급 등이 성적표에 기재되는 '상대평가' 라는 것이지요. 즉 나는 본래 90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만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7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원점수를 보정한 '표준점수'가 나오고 해당 시험을 치른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백분위와 등급이 나오므로 난이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시험이 쉽든, 어렵든 수험생들은 어려운 수능에도 쫓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능 영역별로 무엇을 핵심적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본 뒤, 국영수 각 과목의 중요성과 학습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 실력 갖추려면?

독해력 잡아라

최근 수능 시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어려워진 국어입니다. 그간 국어는 수학에 가려져 수험생들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어가 입시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독해력을 요구하는 독서 파트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요.

수능 국어영역은 △독서 △문법 △문학 △작문 △화법,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이 중 수능 국어를 유독 어렵게 느끼도록 만든 주범은 바로 '독서' 파트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이 모두 이 독서 파트에서 나올 정도지요.

독서 파트는 문법이나 문학 파트처럼 국어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역량을 평가하는데, 작문과 화법이 각각 쓰기와 말하기 역량을 평가 하는 것이라면 독서는 읽기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이 아닌 비(非)문학 지문을 주고, 지문에 딸린 문항을 통해 해당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능 국어 독서 파트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상 주어진 글을 잘 '읽기'만 하면 문제 풀이의 절반 이상이 해결되지요. 수학 문제처럼 어려운 계산을 해야 하거나 사고력을 동원해 풀이법을 생각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문법 파트를 풀 때처럼 국어 교과 지식을 암기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고 학습한 지식이 아닌 역량을 평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독해력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국어 문제집을 보며 연습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최근 수능에서는 이토록 간단한 '잘 읽기'에 실패한 수험생이 많습니다.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으니 자연스레 지문에 딸린 문항도 틀리는 것이지요.

그간 수능 국어에서 독서 파트는 1500자 내외의 지문과 이에 딸린 3, 4 개의 문항이 한 세트가 돼 4 개 세트가량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독서 파트에서 출제되는 문항이 3개 세트로 줄고 있습니다. 대신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고 한 세트에 포함된 문항 수가 늘어났지요. 2017학 년도 수능에서 출제된 독서 지문의 길이는 △철학 지문 2080자 △과학 지문 2003자 △사회 지문 2548자로 모두 2000자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지문에 딸린 문항 수도 최대 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읽어야 할 지문의 길이가 늘어난 것은 물론 한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문항도 많아진 것이죠.

결국 문항의 난이도보다도 길어진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것이 많은 수험생들의 '패인'이 되었습니다. 국어에서 확실한 점수를 받으려면 이렇듯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르게 읽고 문단의 주제를 파악하고, 기억해야 할 정보도 메모해가며 글을 독해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수능 국어는 앞으로도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큼니다. 영어 절대평가 전환으로 국어와 수학이 일정 수준의 난도를 유지해야만 수능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은 긴 지문과 서로 다른

장르가 융합된 지문과 같은 고난도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수능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 '킬러 문항' 정복하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막론하고 정시모집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경우 수학은 더욱 중요합니다. 정시모집을 고려한다면 수학을 포기하고서는 최상위권 대학은 고사하고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학 반영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능 수학 성적은 그야말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수학의 출제 난도는 고난도 문항의 난도로 결정됩니다. 최근 수능 수학은 고난도 문항이 '킬러 문항'이라 불리 정도로 어려운 대신 나머지 문항들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킬러 문항'이 수험생들의 체감난도를 크게 끌어올렸지요. 해마다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이자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킬러 문항은 보통 21번, 29번, 30번 등입니다. 결국 이 킬러 문항을 정복해야 탄탄한 실력을 갖추 수 있는 것입니다.

최상위권 대학 입학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킬러 문항까지 모두 맞히는 것을 목표로 수학 학습에 매진하길 바랍니다. 중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기본에 충실한 학습전략을 세워 2, 3점짜리 문항의 정답률을 안정적으로 높인 뒤 고난도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점짜리 문항이라고 겁먹고 학습을 미루지 말고,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힌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습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영어, 절대 얕보지 마라!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수능 영어지만 '1등급 받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 해 영어학습을 안일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영어에 서 1등급을 놓칠 경우 정시모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조건' 1등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영어 학습에 임해야 합니다.

주요대학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하려면 수능 영어 90점 이상을 받아 1등 급을 받거나 못해도 2등급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현재 모의고사 영어영역 에서 2등급을 받는 고1, 2 일지라도 1등급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영어 난도가 높아지면 1등급 학생들이 대거 2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고 2등급대의 학생들이 3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모의고사 영어 점수가 70점 이하라고 해서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터를 닦아야 튼튼한 집을 짓는 법. 자투리 시간을 내 어휘·어법과 같은 영어의 기초를 확실히 다잡는다면 실제 수능에서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70점 아래로 나온다는 것은 영어 문장 해석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기본적인 어휘 암기로 시작해 수능을 치를 때까지 점차 어휘 난도를 상승시켜 까다로운 영어지문이 나와도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의고사 영어에서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도 끝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수능 당일에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 에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높은 난도로 문제풀이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90점과 80점의 경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 실수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고난도 문제를 풀며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영어 실력이 출중한 경우라도 언제나 빈칸·문장 채우기와 문단 배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능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승리하려면 수능 직전과 수능 당일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이 하루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만큼 마음을 다잡고 컨디션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이 책을 읽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당일과 직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전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기름기가 많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 음식, 찬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험표와 수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물건(필기구 등)을 미리 잘 챙겨놓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 입고 갈 옷의 호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어두면 안전할 것입니다. 특히 허용된 필기구는 여유있게 몇 개 더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상비약(청심환, 두통약 등)을 준비해두어 만일 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전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잠을 충분히 자두도록 합시다. 그래야 다음날 머리가 맑을테니
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TV 시청 등은 삼가야 합니다. 만일 잠이 오지 않으면 안정제의 복용보다는 가족에
게 신체의 일부를 가볍게 주물러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당일 행동 요령은 시험 전날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험 시작 시간으로부터 두 시간 반 내지는 세
시간 전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합시다. 사람은 잠에서 깬 후 세 시간 정도가 지나야 두뇌의 회전이
가장 활발한 상태로 들어섭니다. 이를 기억해 꼭 시험 시간 세 시간 전에는 일어날 수 있 도록 합시다.

수능 당일, 옷은 얇은 것으로 여러 겹 껴입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입고 벗으며, 체온
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두어야 하고, 시간이 걸리는 화장실의
불일은 집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도시락으로는 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햄버거 등)은 피
합니다. 과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교통이 그리 혼잡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일찍 나서서 시험장에서 오래 기다리느라 피
곤한 몸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입실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일찍 도
착한 학생은 차에서 기다리더라도 차문은 열어두고 히터는 최소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중에는 단 음식(엿, 사탕, 껌 등)과 자극적인 음식(드링크류, 커피 등)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단,
점심 이후 시험이 끝나기 세 시간 전부터는 단 음식과 커피 등을 먹는 것은 피곤함을 풀어 주는 것과 긴
장감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음식과 커피 등은 섭취 후 2~3시간 정 도는 뇌의 작용
을 평균 이상으로 올려주나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섭취한다 해도 다시 평균 이하로 머무르도록 하게 합니
다.

시험 중 답은 문제 번호 밑에 확실하게 써두는 것이 답안지로 답을 옮길 때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답
안 작성할 시간 때문에 못 푼 문제를 찍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일단 문제지에 답이 표시되어 있다면
옮기는 시간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신선한 바깥 공기를 쐬고, 심호흡을 해줍니다. 머리를 심장의 위치보다 낮은 위치
에 내려오게 해서 뇌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시간과 가능하다면 쉬는
시간에 심호흡을 하면서 짧게라도 혼자 걸어 보세요. 걸으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마음도 가벼워 질 것입
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와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난 시간의 답을 맞추어본다거나 이미 지나간 시
간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로 주의력을 흐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의 결과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도 주질 못합니다.

시험 후 정확한 가채점 결과를 근거로 수시와 정시 사이의 유불리를 살펴 수시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필요 시 입시전문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능 날, 이 책을
읽는 모든 수험생들이 선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